

서울시교육청, 48개 사립학교법인 교사 위탁채용 건설·상업 등 33개 과목 교원 선발

74개교 184명 규모 위탁 채용
공립교사 임용시험과 절차 동일
중등 임용 미선발 7개 과목 포함



서울시교육청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은 48개 사립학교 법인의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은 48개 법인 74개교에서 184명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2012년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에 교사 채용 과정을 위탁하는 학교 법인은 2012년부터 지속해서 늘고 있다.

선발 과목은 총 33개다.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7개 과목이 포함됐다. 건설, 디자인, 상

업, 의상, 일본어, 전기, 전자 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위탁 채용 절차는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다. 공·사립 동시 지원제로 원서 접수를 진행한 뒤 1차 필기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인원의 5배수 이내로 결정되며 시교육청은 해당 명단을 각 법인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법인별로 수업 실연과 면접 등 2·3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재된 시행계획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립 초·중·고교는 교원 신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원을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했으나, 사학 일부에서 채용 비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사이버대 국민대표팀이 AI경진대회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첫 번째 노건태 서울사이버대 교수, 오른쪽 첫 번째 천지영 서울사이버대 교수). /서울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기후기술분류 AI경진대회 우승

노건태 교수 등 국민대표팀 성과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는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와 노건태 교수(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장, 빅데이터 AI센터장)와 천지영 교수를 포함한 국민대표팀이 녹색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자연어 기반 기후기술분류 AI 경진대회'(이하 AI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AI 경진대회는 녹색기술센터 주최, DACON 주관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8주에 걸쳐서 진행됐다. 총 258팀에서 831명이 참여했

으며, 상위 3팀에게 수상 및 상금이 지급됐다.

노건태 교수(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학과장)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빅데이터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서울사이버대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빅데이터와 정보보호 인재 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을 선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뛰어난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중앙대, CPA 104명 합격... 전국 3위

〈공인회계사시험〉

2년 연속 100명 이상 합격
준비반 '용우당' 통해 학생 지원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제56회 공인회계사시험(CPA)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명이 넘는 합격자를 배출하며, 2년 연속 전국 3위 자리를 지켰다.

중앙대는 올해 실시된 CPA 2차 시험 합격 현황을 집계한 결과 104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104명은 단일 대학 기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중앙대는 지난해 103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2년 연속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중앙대는 공인회계사시험 준비반인 용우당을 운영하며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용우당이 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책은 다양하다. 철저한 출결 관리를 통한 공

부시간 확보와 규칙적인 생활 여건 마련, 동영상 강의와 학원 수강 비용, 학습에 최적화 된 열람실·스터디룸, 자체 모의고사 등을 지원하며, 시험 당일 교통수단 제공 등 편의도 제공한다.

수험생과 합격생, 현직 회계사 등 문 등이 모여 합격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CPA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있다. 올해도 비대면 상황을 고려해 줌(Zoom)으로 토크 콘서트를 실시한다.

중앙대는 학생들의 CPA 준비를 돕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계획 중이다. 앞서 용우당은 수험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방학 동안 30명을 선발해 동영상 강의를 강도 높게 수강하는 '윈터 클리닉'을 운영했으며, 이를 거친 학생들이 대다수 CPA에 합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썸머 스쿨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현 150명 규모인 용우당을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용우당 지도교수인 모경원 경영학부 교수는 "중앙대 CPA는 이제 완전히 순환 구조에 들어섰다"며 "좋은 성과가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 앞으로도 중앙대는 CPA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박상규 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PA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리 중앙대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롭다. 앞으로도 자신 있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CPA에 도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중앙대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중앙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대교협, 14대 사무총장에 이기봉 선출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14대 사무총장으로 이기봉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을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기봉 신임 사무총장은 교육부장관 승인을 거쳐 지난 10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9월9일까지 3년이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7월23일 이사회를 열고 사무총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응모자 가운데 전형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이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연세대 교육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에서 교육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장, 대학학무과장, 대학정책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이후 충남대 사무국장, 외교부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교육관), 교육부 대변인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교협 사무총장 취임 직전까지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맡았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해군, 해양·안보 교류협력 강화

학·군 협력관계 구축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와 해군(참모총장 부석중)은 10일 오후 2시 고려대 본관에서 해양안보정책발전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고려대와 해군 간 전략적인 학·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양안보와 사이버안보 정책발전과 연구협력은 물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산하 '해양사이버보안연구센터' 설치 ▲사이버안보 연수과정 개설 ▲

해군-해병대 자녀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학·군 교류협력 방안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학교와 해군의 교류협력은 우리 해양사이버안보 확립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설되는 해양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향후 진행될 사이버안보 연수과정,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협력 프로그램 모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 최고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육기반과 연구력을 해군과 공유하고, 해양안보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해군본부 차원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왼쪽)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오른쪽)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에서 다양한 협업과제들을 내실 있게 수행하여 학·군 교류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와 해군은 지난 2011년 고려대-해군사관학교 간 양해각서 체결, 2019년 고려대-해군교육사령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3D Pen' 아티스트 양성

주민·대학생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단은 지난달 24부터 26일까지 3일간 가온누리 I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 Pen Artist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주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Pen 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진행됐다.

첫날인 8월 24일에는 3D 프린트의 원리, 3D 프린팅 Pen의 구조와 사용법 등 이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됐다. 25일에는 3D 프린팅 Pen을 이용한 선과 도형 그리기와 같은 기초적인 실습이 이뤄졌다. 26일에는 3D 프린팅 Pen을 이용해 거미줄과 바구니를 만들었다.

캠퍼스타운조성단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28일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제작 프로그램 및 이모티콘을 이용한 배지와 머그컵도 만들기도 이뤄졌다.

김영욱 캠퍼스타운조성단 단장은 "세종대 캠퍼스타운조성단의 강점인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인근 지역을 글로벌 창업기지로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 메이커스페이스와 다목적실에서는 지역주민, 세종대 학생과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에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의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으며 사전 예약 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